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3. 8. 8.(화) 15:00
○ 장 소 : 구로구의회 지하1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간사 정OO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이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조례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OO 위원, 안OO 위원 추천)

지금 송OO 위원님, 안OO 위원님이 지금 추천을 받으셨는데요, 안OO 위원님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안OO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교직에 한 30년 넘게 있다가 퇴직해서 지금 한 10여 년 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에 있으면서 또 퇴직을 해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를 꼭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청출어람이라는 단어를 저는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에게는 정말로 감격스럽고 또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다 바로 딱 들어오자마자 제가 가르쳤던 송OO 위원이 인사부터 하더라고요. 역시 교직에 있기를 잘했다, 청출어람 그 단어가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구로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위원님들이 누가 위원장님이 되시든 간에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위원장을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앞서서 어디에 앞에 나가서 제 이름 석자나 제 얼굴을 알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수궁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고문입니다. 작년까지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궁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제 이름 석자와 얼굴 자체를 모릅니다. 왜냐, 저는 뒤에서 서포트를 하는 것이지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앞서서 끌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OO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신 것은 아마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천을 해주시는 건데 제자가 사퇴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또 제가 사퇴를 했으면 되겠지만 김OO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퇴한다고 그러면 또 위원님도 그럴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출어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공정하게 한 번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OO

그러면 송OO 위원님하고 안OO 위원님 총 2명으로 투표로 진행할까 하는데요.

(투표용지 배부)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에 위원장으로 선정하실 분 성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회수하겠습니다.

(투표용지 회수)

투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7표 중 안OO 후보자님 득표수 4표, 송OO 후보자님 득표수 3표로 안OO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OO

2023년도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를 맡게 된 안OO 위원장입니다. 우선 이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자인 송OO 군은 정말로 지금 법무사로서 또 우리 구로구의 시민활동가로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구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송OO 위원이나 나머지 모든 분들이 다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인품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다만 저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아마 제자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자리에 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먼저 갈 거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송 위원하고는 정말로 또 막역한 사이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퇴직을 했을 때 그때도 같이 생활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구로구를 대표해서 우선 위원회에 위원님으로 위촉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구로구의회의 발전과 또 우리 구로구의회 의장님 및 구로구 의원님들 또 사무국 직원들이 구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사는 아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회칙에 보면 간사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사님께서 성원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여기는 호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 선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어떻게 새로 선출할까요? 아니면 저하고 경선을 했던 우리 송OO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OO 위원이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일동박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회칙에 의해서 간사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사님께서서는 성원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OO

성원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 일곱 분 총 일곱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OO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3년도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1.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의 건

○위원장 안OO

그럼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업무담당 팀장으로부터 추진 결과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OO 위원장님께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질의 응답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담당팀장인 정책지원팀장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추진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박OO

안녕하십니까, 정책지원팀장 박OO입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 기간은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5박 8일로 오스트리아, 체코 2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참여 인원은 의원 11분, 직원 6명 그래서 총 17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추진 경위는 2월부터 7월까지 의장단 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방문국과 방문 시기, 선진 정책 분야 등에 대해서 의원 전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공무국외 출장사 선정을 공개 모집을 통해 2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서 설명회 개최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공개 모집을 통해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시민단체도 경제·교육·인권·환경 분야로 다양한 분야의 위원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의원님들과 준비하면서 지난 5년간 진행했던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금번 공무국외출장에서 개선사항을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로 구로구 집행부 관련 부서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어서 관련 부서에 의견 수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국외출장 전에 비교시찰 주제 중 선택해서 전문가와 집행부, 위원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설명을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여행사 관계자가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의원을 대표하여 운영위원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국외출장을 다녀온 후에 본회의장에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회 본회의장 시스템이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구민들께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나 개선사항 등을 정식으로 구로구 집행부 관련 부서에 제언하고 구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결과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구정에 꼭 필요한 정책들은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해외비교시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해외비교 시찰로 저희 구로구에서 체코하고 오스트리아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문 분야 장소를 차별화하였으며 2017년도 당시에 참여하였던 분은 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우리 송OO 위원님께서 유선상으로 지난 공무국외출장 다녀온 이후에 우수사례로 조례 제·개정한 사례가 있는지 정리해서 자료를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관계상 급하게 다 정리할 수가 없어서 2019년도 우수 사례로 한 가지 정리해서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진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OO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의회 이OO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OO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OO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OO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휴가도 못 가시고 오신 것 같은데 휴가 다녀오셨어요? 안OO 위원장님과는 학부모와 선생님이 만나서 벌써 2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뵙고, 반갑습니다.

먼저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 위원 위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회는 의원의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여 구 정책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5박 8일간 오스트리아와 체코 2개국에 대한 비교시찰을 계획하였습니다. 참여 예정 인원은 의원 11명, 직원 6명으로 총 17명이며, 총 출장여비는 약 6,500만원입니다.

방문국가에서 활동할 내용은 호주 비엔나의 아스페른 스마트도시를 방문하여 스마트시티 조성사례를 시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인 아동복지시설인 SOS 어린이마을을 방문하여 정책의 제도적 특징을 검토하여 구 정책에 제안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분야인 청년 스타트업 지원 관련 비엔나 비즈니스 에이전시를 방문할 계획이며, 스마트도시를 선도하는 구로구의 목표에 맞춰 체코공과대학 연구소인 프라하 4차 산업연구소 등을 기관 방문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사례인 가소메타 주거단지, 프라하 하벨시장 방문, 낙후된 시설 및 공간을 문화복합 공간으로 혁신한 도시개발 사례인 체코의 카사르나 카를린 등을 현장 시찰할 계획입니다. 일자별로 세부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높이기 위해 출장자 개인별로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각자 맡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 기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운임을 산출하였으며, 숙박비는 상한액의 85%로 산정하고 일비는 1/2 감액하였습니다. 현지에서 시찰하게 될 정책이나 제도, 시설들과 구로구의 현황과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출장 성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이번 공무국외출장이 외유성이 아닌 내실 있고 발전적인 출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이며, 공무국외출장 귀국 후에 출장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금번 해외비교시찰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OO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께서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OO위원

어제 메일로 보내주신 것하고 살짝 내용이 다르잖아요? 하루만에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정책지원팀장 박OO

해외 기관 방문은 답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메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여행사에서 미팅을 하자고 그래서 왔는데 일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시간하고 결정된 게 그래서 일정이 좀 급하게 수정이 됐습니다.

○송OO위원

이번에 의원 11명, 직원이 6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고 자료에는 7명으로 돼 있네요.

○정책지원팀장 박OO

합계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OO위원

오타 없는 계획서를 좀 보고 싶은데 매년 오타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어쨌든 직원 6명이 맞는 거죠? 근데 제가 공무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부터 얘기했지만 수행하는 직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도, 그래서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최초의 공무출장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낼 때도 오히려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의원은 아니겠지만 당시 의원들이 해외 나가서 여행 가방을 본인이 들지 않았어요. 직원을 많이 데려가서 직원한테 가방 맡겨놓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직원 수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직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2019년에 출장 갔던 인원이 의원 몇 명에 직원 몇 명이었었죠?

○정책지원팀장 박OO

의원 열네 분에 직원 6명이었습니다.

○송OO위원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것만 봐도 14명에 6명 가는 것도 많다, 라고 지적을 당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가는 의원이 11명인데 그대로 직원은 6명이고 그다음에 전에 개선안에 나왔던 것이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따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구청 쪽에서 구로구의회에서 공무출장을 갈 때 관련 부서 직원을 같이 보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배워오게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이번 직원들은 다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고 제가 이 직원들 구성에서 남들할 수 없는 거는 사무국장님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역대 국외공무출장에서 사무국장님이 가신 적이 있나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있습니다.

○송OO위원

있어요. 언제요?

○정책지원팀장 박OO

2014년도인가에 한번 가셨습니다.

○송OO위원

그래요? 저는 사무국장님이 가시면 오히려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모시고 갈 상사를 하나 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가실 필요가 없는 분이고 오히려 의회를 지키셔야 되는 사무국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지원팀장님이야 모르겠지만. 그리고 박OO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연수 담당이라고 치고 조OO 주무관이야 사진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정책지원팀장님이 가시는데 정책지원관이 간다는 것도 저는 중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를 저는 지금 6명에서 한 4명까지도 줄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지원팀장 박OO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타구 현황을 저희도 쭉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원이 훨씬 많은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 과거에는 저희 직원들이 한 8명씩 갔었어요. 그런데 8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지금 6명으로 줄인 상태고요. 2019년도에는 집행부 포함해서 7명이 간 거였어요. 올해는 저희가 정책지원관이 생기면서 자료수집이나 정보나 거기 현지에 가서 기관 방문하는 것 토의하고 이런

것을 정책지원관이 전담해서 서포트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수행 직원에 정책지원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전문직으로서 정책적인 지원을 할 거고요. 수행직원은 사실 4명이고 국장님은 의원님들이, 의장님 포함해서 많이 가시니까 어떤 현장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하면 총괄도 필요하고 해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좀 국장님이 같이 가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송OO위원

지금 직원이 8명이 갔다는 게 언제 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7년에 체코, 오스트리아 갈 때도 지금 14명에 직원 6명 갔어요.

○정책지원팀장 박OO

2017년도에는 의원 열한 분에 직원 여섯 분.

○송OO위원

이 자료가 지금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자료인데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구의원 14명, 직원 6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자료가 뭐가 잘못된 자료인가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

○정책지원팀장 박OO

제가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OO위원

이거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장 인원이 적정한가도 심사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쨌든 객관적인 이견 수치인 거잖아요. 의원 1인당 몇 명이 갔었는지 객관적으로 나온 수치고 이번에 의원이 가는 인원은 지금 11명인데 수행 직원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6명이라는 거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수정하셔야죠. 무조건 계획된 대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수정하시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인원 구성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총 몇 명이죠? 16명 아닌가요? 16명인데 의원이 지금 11명이 간다고 신청한 것은 저는 이것도 좀 의아스러워요. 왜냐하면 구로구의회는 그동안 어쨌든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많았었고 의원 스스로도 본인이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이거는 지금 국민 세금으로 가는 외유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고 해서 안 간 의원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김OO 의원이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김OO 의원도 지금은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한 3선 하시면서, 초선·재선 때까지만 해도 계획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외유성이라고 생각되면 본인이 안 갔어요. 본인이 꼭 배워야 될 것이 있다든가 하면 선택적으로 갔지 안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초선 의원을 포함해서 5명이나 되는 의원이 안 가는 것은 이번 계획이 뭔가 의원들 스스로 양심에 걸리거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간 게 아닌가, 저는 좀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마침 또 지금 공교롭게도 저는 이거를 강력하게 가자고 한 의원 그리고 계획을 짰 의원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주장을 계속 했었고 의장님을 미리 만나서 그렇게 발표 의원을 그렇게 정해달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지금 이번에 참석을 안 하시는 운영위원장님이 지금 하신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이게 상황이 이상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이 좀 입장을 왜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훌륭한 계획을 짜놓고 불참하시게 되셨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왜 지금 이 계획을 추진했던, 사실은 이게 지금 유럽만 한 지금 네 번째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녀왔던 장소를 다시 가면서까지도 어쨌든 그러면 가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원이 나와서 자기가 왜 여기 가서 무엇을 배워오겠다고 발표를 하고 여기 심의위원들한테 어쨌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의원이 나오지도 않고 우리 지금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않으시는 이OO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왜 안 가게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장 이OO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보고를 하는 거는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업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거고요. 제가 안 가게 된 이유, 호주랑 체코 관련하여 의원들 선호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의원들 선호도 조사를 하였는데 8:6:2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의장단 회의 결과 저는 개인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두 곳을 나눠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의장단 회의에서 네 분의 의원님들이 다수결의원칙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가 체코랑 오스트리아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눠서 가자고 한 이유도 저희가 사실 구로구의회 조례도 있지만 행안부 규정이 의회를 전체 비우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눠가면 의회도 비우지 않고,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제가 또 사실은 운영위원장으로서 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제 개인적인 집안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했지만 8:6으로 갈렸으니까 제가 원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개인적인 일을 안 하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구로구의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 회의 소집할 수 있는 분이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세 분 중에 한 명은 남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안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송00위원

지금 보고를 운영위원장이어서 하게 됐다. 이거는 전혀 법적 근거나 관례상으로도 없었던 일인 것 같아서 답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러면 유럽이 8, 호주가 6, 다른 지역이 2로 나왔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사실은 의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그룹을 나눠서 지금 예산을 따로 잡고 계획을 따로 잡아서 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운영위원장 이00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자부담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수결의원칙으로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송00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그룹을 나눠서 간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그럼 예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운영위원장 이00

타구에도 예산 문제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상임위별로 나누어 가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사항으로 나누어 가는 의회도 있다고 들었는데 의장단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송00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의원으로서, 이게 공무국외출장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국내에서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국내에 국외출장 연수 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해외 출장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해외 출장을 갈 이유가 있을 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분들이 꼭 내가 나가서 이걸 봐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자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나눠서 가겠다, 라고 하면 오히려 더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죠. 비용 문제 때문에 나는 유럽에 가서 볼 것도 없는데 네가 빠지면 이거 비용이 안 맞으니까 그냥 다수결에 의해서 가라, 이렇게 지금 일부 의원들이 강요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명이 불참하는 사태가 나온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장 이00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다 대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다음 차후에는 애초부터 국외공무출장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우리 부위원장님이 의견 주시면 충분히 개선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00위원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의견을 이미 5~6년 전부터 꾸준히 내왔지만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지고요. 저도 공무출장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번 임기가 마지막으로 아닐까 싶고요. 저는 성과 없는 데서 일하기는 싫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의원들이 많이 빠지는데 그러면 혹시 자부담이 혹시 발생한 거 아닌가요? 여기 지금 부담 기관이 다 구로구의회로 되어 있는데.

○정책지원팀장 박OO

이 계획서는 일단 예비 산정한 거고요. 다녀와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아마 자부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으로는 한 1인당 5~60만 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송OO위원

그거는 지금 적정 금액으로 갖다 올 수 있느냐도 지금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저는 자료에 들어갔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여행사하고 혹시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이거는 예비 산정에서 개인 의원님들께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송OO위원

여행사하고 계약을 체결 안 하셨다고요?

○정책지원팀장 박OO

네.

○송OO위원

이 공무국외출장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을 담당하는 여행사를 선정을 했는데 계약서는 안 썼다고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여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송OO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하지만 지금 가는 인원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직원이 지나치게 많다.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의원이 지금 여기 지금 가고자 하는 명단 11명 명단이 있는데 이OO 의원, 홍OO 의원, 방OO 의원, 전OO 의원, 김OO 의원(국민의힘) 이렇게 지금 5명이나 지금 불참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원래 취지로 돌아가서요, 일정을 바꾸더라도 나눠서 가는 걸로 계획을 다시 짜보시는 게 어떨까요? 직원 수를 줄이고.

○정책지원팀장 박00

이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송00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지원팀장 박00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고요. 저는 옆에서 같이 준비한 입장에서 진행 상황을 보면 일단은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께 수요조사를 했고요. 한 4개 정도 대안을 드렸고 거기서 어떤 분야를 벤치마킹하고 싶은지 선택할 기회를 드렸고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을 대표하는 의장단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체코, 오스트리아였고 그걸 선택한 것도 다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하신 거고요. 그래서 결정됐고 다시 의장단 회의에서 그러면 다수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 곳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결정하신 겁니다.

○송00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행정적인 책임이 없다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직원 수도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서 예산 낭비인 측면이 있고 의원들이 많이 불참을 하고 있는 것만큼 분명히 이 계획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도 저는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단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일단 저도 질의할 것도 많지만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00위원

제가 어제 이거를 미리 받아놓고 집에서 한번 계속 훑어봤거든요. 왜 체코일까, 왜 오스트리아일까, 라는 생각을 사실 먼저 했고요. 그렇게 체코가 우리보다 선진국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런데 오늘 와서 다른 자료를 더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7, 18, 19일 계속 유럽으로만 가 있고 이미 체코·오스트리아 갔다 왔고 그다음에 방문 지역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지금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부분이 지금 또 나오는 것 같아서 왜 자꾸 체코와 오스트리아가 우리 구로구 의원님들은 가보고 싶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사실 송00 부위원장님만큼 많은 걸 알지 못해서 그런 안에 있는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걸으로 그냥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다른 나라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갔다 온 비교를 주신 거는 전체가 지금 다 유럽이고 그 유럽 중에서도 우리가 갔다 온 나라를 같은 내용으로 지금 스마트시티,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돌봄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기는 하겠지만 왜 같은 내용으로 또 한 번 이번에 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 저는 오늘 구의원님이 오실 줄 알고 좀 여쭙보고 싶었는데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장소가 되게 궁금해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의원님 수요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네 가지 대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미국도 있었고 최첨단 도시로 뜨는 두바이도 있었고 북유럽도 있었고요. 그중에 하나가 체코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체코 오스트리아. 그런데 어쨌든 수요 조사 결과가 8분이 체코 오스트리아를 선정하셨고요. 그 안에는 17년도에 다녀온 거하고 이번에는 겹치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예요. 그리고 프라하는 또 4차 산업 첨단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쨌든 결정은 의원님들이 수요 조사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때랑 겹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새로 9대로 다 바뀌셔서 그때 가셨던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고 스마트도시는 사실 변화 속도도 빠르고 저희가 볼 때는 또 넓은 데서 보시면 건물도 또 달라지시고 창의적인 어떤 의식도 변화되는 긍정적인 면도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2019년도 우수사례를 하나 드렸지만 밀라노 이탈리아 스마트시티를 그때 다녀오셨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없었지만.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봤는데 밀라노 스마트도시가 저희보다 먼저 생겼어요. 저희는 2019년도에 스마트도시과가 처음 생겼고 맞물려서 다녀와서 거기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서 착실히 준비하고 이런 거에 되게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다녀오셔서 그 결과물을 직접 가지고 스마트도시과에 전달을 했고 스마트도시과에서 그 결과를 보고 우리도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해서 수립을 했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고요. 기초지자체에서 2022년도 12월에 스마트도시 우수사례로 대통령상 수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정에 접목되면서 예산 절감도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범죄 예방도 많이 됐고 그리고 제가 의회에 와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30년 근무하면서 의회에 처음 근무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집행부에 있으면서 의회의 의원님들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시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제가 와서 좀 감명을 받았어요. 의원님들이 10시, 11시까지 남아서 공부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실 미안했어요. '그동안 내가 오해를 했구나' 결산 검사 때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런 의원님들일 거라고 저는 상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예산 낭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긍정적인 면도 훨씬 많고 수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넓은 선진 사례, 꼭 선진 사례가 아니라도 우리와 다른 정책을 보는 것만으로 해도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심사는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거고요. 올해 개선사항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OO 위원님께서 2019년도에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아주 면밀히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도 개선하려고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개선을 올해 몇 가지 했거든요. 계속 개선해 나갈 겁니다. 제가 정책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이상 의원님들도 계속 괴롭힐 거예요. 힘드시게.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저희가 해외 비교시찰 나가기 전에 전문가 세미나도 할 거고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할 거고 공부도 시켜드릴 거고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드릴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OO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부위원장님께서 그 사무국 인원이 너무 많이 가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구하고 구의회하고 직원들이 분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송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구청 그쪽에 관계되시는 분이 이쪽에 같이 갔으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완전히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 같고, 또 하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좀 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내에 있다가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면 전부 다 애국자가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다 애국자가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견문을 쌓고 넓혀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만 더 있다고 그런다면 저는 여기 직원분들이 좀 더 많이 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분리가 된 거 보면 이렇게 여섯 분들의 사무분장을 해놓은 거 보면 전부 다 자기 맡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 간에 어느 부서에 가서든 간에 보면 인원이 적어도 꼭 자기가 맡아서 해결해야 할 각 부서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사실은 돈만 많다면 좀 더 많은 분이 가서 견문을 넓혀가고 와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OO위원

부위원장님은 오랫동안 이 활동을 하셔서 또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원에 관련 부분은 또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는 거고요. 사실 저도 어제 자료를 받고 장소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래서 같은

장소를 계속 가는 건 아니지만 3년 동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셨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같은 유럽의 장소를 가서, 조금 다르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사실 첫 번째로 들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자세히 다시 보니 사람이 바뀌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또 같은 사람이 가지 않고 이렇게 오늘 들어보니까 두 사람만 겹친다고 하니까 조금 여지가 있겠구나, ’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 부위원장 말씀도 맞다고 생각해요. 다시 해서 다시 하자. 그런데 사실은 그러기에는 올해 너무 시간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난번처럼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제안을 해서 수정해 가는 그런 방식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사실 다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구로구에서 오랫동안 나고 자라서 구로에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 예산이 정말 소중한데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도 많이 넓히고 많이 배우셔가지고 정책도 반영하고 우리 구에 사시는 우리 주민분들한테 많이 혜택도 드리고 제가 또 활동하고 있는 경제 분야나 도시재생 분야에 제안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위원장님 계시니까 다수결로 하지 마시고요. 선정돼서 다수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 그 방법을 제안드려요. 다수결로 하지 말고 사무국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장소를 정할 때 반영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 열여섯 명 그러면 다 갈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 1인당 여비가 정해져 있어서 나머지는 추후에 자부담을 해서 하는데 저도 자부담 비용을 좀 여기다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부담 없이 다 가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가해서 해 주시면 우리가 위원으로서 볼 때도 ‘아, 자부담해서라도 공부를 하고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들과 그 다음에 많은 위원들이 참여해서 많이 배워오셔야 우리 구정에도 영향력 있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실 공무국외출장 가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그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가야 하는 이유. 왜 가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에 맞는 나라를 선정하고 많은 분들이 간다. 이런 맥락으로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제안으로 한번 저는 드려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OO위원

의견 좀 드려도 될까요? 김OO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부터 다수결로 하지 말자고 제안을 한다. 제안을 받아들일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다수결로 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으려면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안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정확하게 심사해서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고 그 계획을 부결 시켜야 되는 거죠. 부결을 시키거나 변경을 해서 다시 가지고 와라, 라고 해야지만 그 잘못된 방법이 고쳐지는 것이지, 너네들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음부터 잘하라고 해서 고쳐지는 거를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구로구에서만 쪽 50년 산 사람인데요. 아직 못 봤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직원의 인원 문제라든가 비용 문제라는 부분에서 더 보냈으면 좋겠다, 어떤 목적을 떠나서 전문이라도 넓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취지의 좋은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최근에 공교롭게도 잼버리대회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뉴스에서 나오는데 보면 그 수많은 잼버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운영 비용으로 70%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해외 사례를 보겠다고 공무국외출장을 가가지고 잼버리 대회를 개최한 적도 없는 도시에 가서 와인 시음하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세금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왜 거기 갔느냐, 왜 이런 거를 일정에 넣느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세계적인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문화적 소양을 갖기 위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잼버리 완전 뭐 요즘 얘기하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죠. 창피해 죽겠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무출장 계획을 제출했을 때 너네들 제정신이나, 심의를 똑바로 했다면 그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고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 지금 공무출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시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오신 위원분들이라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엄격한 심의기준을 가지고 심의에 참여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로구의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잘못된 관행을 바꾸라고 지금 세 번째, 2017년·19년·2023년까지 지금 공무출장에 대해서 계획과 갔다 온 다음에 결과 보고서까지도 지켜보고 제가 지금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나름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제가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변화된 건 없다. 근데 이러한 변화를 주려면 의원들도 지금 바뀌어요.

그런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의원 탓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회사무국 탓이에요. 의회사무국 지금 팀장님 앞에 게시지만 팀장님 여기 게시다가 일이 잘못됐다. 다음부터 개선해라, 라고 지적된 사항을 갖다가 인수인계를 심각하게 안 하고 다른 자리로 가버리시면 의회사무국은 변화되지 않고 공무출장 계획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방식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이 정확하고 공정한 심의위원들의 심사에

의해서 뭔가 변경이 되거나 부결이 되거나 이러한 경험을 가져야만 '아, 이게 지금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의원들이 주체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여행사가 짜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 계획도 과연 어떤 의원이 이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게 의원들이 스스로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하고 스스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접촉할 기관을 정하고 거기를 의원 스스로 의회사무국의 도움을 받아서 접촉해서 방문 허락을 받고 이런 준비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 라고 수없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도 저는 이 역할들이 모두 다 여행사에 맡겨져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방문 기관에 대해서 지금 다 협의가 끝난 상태인가요? 팀장님!

○정책지원팀장 박OO

공식 방문이 네 군데 계획돼 있는데요. 세 군데는 섭외가 확정됐고요. 한 군데는 지금 계속 메일로 주고 받으면서 조율 중입니다.

○송OO위원

확정됐다, 라는 거를 지금 심의위원들한테 어떤 자료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정책지원팀장 박OO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송OO위원

그것도 심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책지원팀장 박OO

여기 계획서에 접촉 예정 인물은 저희가 확정돼서 좀 기재해놓았거든요.

○송OO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를 제시를 해주세요. 확인할 수 있게.

○정책지원팀장 박OO

여기 계획서에 접촉 인물 일단 명단은……

○송OO위원

접촉 명단이 아니라 엑셀트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정책지원팀장 박OO

네. 그거는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송OO위원

그걸 여기 이 자리에서 보여달라는 얘기에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지금 현재 여기는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송OO위원

준비하시면 되죠. 직원 시켜가지고 엑셀트된 자료 메일 받은 거를 공유를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드릴 테니까 회의 중에 자료가 심의위원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일단 다른 분 또 질의 있으실까 봐 일단 저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OO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자리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쁘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시간을 쪼개서 아까 여기에 세 시에, 딱 4분 전에 여기 도착을 했는데 조금 바쁘게 조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팀장님께서 메일로 주시겠다고 그러면 메일로 받으나 이 자리에서 받으나 그 받는 내용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걸 빨리 만들어 갖고 와서 지금 달라고 그러면 옆구리에서 바로 칼 빼달라, 이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메일로 받았으면 합니다.

○송OO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의는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하는 거지 팀장의 말을 믿고 심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계획대로 통과돼서 가느냐 마느냐를 오늘 결정해야 된다면 오늘 한 번의 회의로, 위원장님 지금 바쁘시다고 했는데 만약에 오늘 한 번의 회의로 결정해야 된다면 자료를 저희가 오늘 제공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자료도 안 보고 무조건 팀장님 말을 믿고 나중에 메일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이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심의 시간이 3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5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만약에 회의가 안 끝날 것 같으면 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잡으면 되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처음 심의를 하시다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임기가 2년인데 사실상 심의위원회가 이 공무출장 갈 때 한 번 열리면 끝입니다. 올해 한 번, 내년엔 한 번 그 열리는 회의를 저희가 공무원들이 준비한 자료만 보고 맞겠지, 하고 그냥 무조건 거수기처럼 통과시키려고 저희가 심의위원이 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충실히 저는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얘기로 저는 부담을 안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거 한두 시간 안에 심의하고 나는 나가겠다, 이러면 심의위원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심의위원들도 마음을 좀 다시 한 번 여유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뭐 끝내야 된다, 이런 규정 없거든요. 저희 임기 2년이고 계획이 충실하지 않다면 계획을 수정 요구할 수도 있고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고 심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OO

심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해외출장을 나가는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자료를 받으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심사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서 그걸로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메일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와서 있는 거나 메일로 받아쓴 거나 그게 틀릴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저희한테 뭐 가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여기 심사표에 의해서 심의를 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OO위원

사실 저도 오늘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도 메일로 장소라든지 비엔나 쳐서 검색해서 보니까 스마트 도시도 그렇고 ‘아, 그래서 정해졌나보다’ 하고 보고 왔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수로 했든 어쨌든 의회에서 공무출장을 계획했고요. 그걸 저희가 너네가 잘못했다, 의원님들이 잘했다, 잘못됐다 여기서는 결정 나기 전에 그분들이 심사숙고를 하면서 했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심의는 의원들은 결정을 했고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게 심사 기준에 적합하게 어쨌든 짚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심사 기준에 적합하게 준비가 됐는지, 위법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잘 모르니까 저는 주무팀장님께서 간단한, 보니까 심사기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사기준표에서 어떻게 적합하게 준비를 했는지 저희는 들어보고 그다음에 심사기준을 저희 각자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 선생님이 많이 아셔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래 그런 적도 있었구나’, 이렇게 알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송 선생님 생각이 개인 생각이 또 많이 있으시고 그거는 송 선생님의 개인 생각이고 또 저희도 송 선생님의 생각을 들어서 변화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외 출장 심사 기준을 적합하게 짜셨는지 설명을 듣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OO위원

말씀하신 대로 심사 기준에서 심사하게 돼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인원이 적정하게 구성돼 있는가, 그것도 심사 항목인 거고요. 예산이 그럼 적정한가 그것도 심사 항목인 거고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맞는지를 보느냐, 공무원의 말을 믿고 맞겠지, 하고 넘어가느냐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심사위원들은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료가 단순히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지난 2019년에 심의할 때는 유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금액이 달라진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꼼꼼하게 봐야지 무조건 담당 공무원이 맞게 했겠지, 이렇게 보실 사안은 아니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박OO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심사 기준에 맞춰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안OO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박OO

그러면 저희 관련 규정에 보면 심사기준이 있는데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장의 필요성”인데요. 심사 기준 첫 번째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서 자료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시설을 보고 관계자를 만나고 질의응답하고 이런 깊이 있는 비교 시찰은 직접 하는 게 효과가 더 높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이걸 설명을 기준에 드렸고요. 체크, 오스트리아, 하지만 장소는 차별화하였고 분야도 차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 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이것도 저희가 직접 SOS 어린이마을이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아스페른 스마트시티나 첨단 산업도시 등등 선진 정책 사례를 직접 보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효과를 높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은 첫 번째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저희가 SOS 어린이마을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아동학대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수 사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구정 주요정책인 스마트 정책에 맞춰서 아스페른 스마트도시도……

○송OO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심사위원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담당 공무원이 지금 쪽 읽으면서……

○위원장 안OO

잠깐만, 부위원장님 아까 우리 팀장님께 설명을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끝나고 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OO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심의위원들이 이 항목을 보고 모든 토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심사기준을 보고 ‘예, 아니오’를 판단해서……

○위원장 안OO

지금 그 뜻은 아니었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부위원장님처럼 여러번 참석을 하신 경우도 있지만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해요.

○송OO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시간이 바쁘시다고 하니까 이러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항목을 설명하시고 넘어가셔야지 팀장님이 이거를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적합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정책지원팀장 박OO

네, 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송OO위원

항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정책지원팀장 박OO

그리고 두 번째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이거는 저희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안 같아서 과거에 동일기관을 방문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같은 동일기관 방문을 계획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면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공식 기관 4곳 중에 3곳은 완료가 됐고요. 한 곳은 계속 섭외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저희가 4개 기관 지금 섭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이거는 세부 일정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출장자의 적합성”, 첫 번째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이거는 저희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맞춰서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이 나열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번 계획에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 부정이 명확한가? 업무분장은 업무계획서에 저희가 적어놓았습니다.

다음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출장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이거는 저희 일정에 맞춰서 일정을 짰습니다. 두 번째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일단 9월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 그 기간을 공무국외출장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기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출장경비의 적정성”,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 기준 및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가? 저희가 관련 규정에 맞춰서 여비를 산출해서 업무 계획서에 적어놓았습니다. 두 번째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적정한지? 출장 경비는 지원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첫 번째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공무국외출장 시 버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송00위원

팀장님, 아니 심사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를 다시 설명하고 계셔서 참 안타깝네요.

○정책지원팀장 박00

출장 심사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답변을……

○송00위원

그 판단을 심사위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팀장님이 여기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성격상.

위원장님, 이제 어쨌든 심사기준에 대해서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이해를 하셨다, 라고 그러면 생각을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안00

네. 질의하십시오.

○송00위원

일단 출장 경비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여쭙보는 걸로 하고 일단 활동내역에서

스마트시티가 또 들어가 있는데 아까 다른 심의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의 출장은 불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집하려고 하는 자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 출장을 가기 전에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에 스마트도시라고 검색하면 해외출장 가서 수집한 많은 자료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구의회의 의원들이 스마트시티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체코를 간다, 저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요. 아동복지 시설 관련해서 SOS 킨더 돌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는 시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98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 굳이 이것을, 아동복지센터의 창립 이념에 맞춰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서 보면 되지, 왜 이것을 해외에 나가서 봐야 되는지 저는 이거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자리를 비우셨으니까 팀장님이 국내에 이 기관이 있는 걸 알고 계셨으면서도 여기를 그러면 선정한 깊은 뜻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제가 알고 있는, 의원님들하고 의논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면 SOS 마을이 양천구에도 있고 순천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 발생하는 아동학대 건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팀도 따로 있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많다, 이 아이들이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갈 곳이 없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SOS 마을에는 과연 아동학대나 이런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우수 사례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도 보고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해서 좀 배워오자, 저희가 이번에 체코 프라하보다는 오스트리아에 훨씬 중점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는 밀라노시티랑 저희도 겹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물론 스마트도시가 최근에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밀라노시티는 현재 있는 도시에 쓰레기를 스마트로 개선한다거나 주차장을 스마트로 개선한다거나 조금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의 스마트 개선사항이라고 하면 아스페른은 완전 계획된 신도시, 유럽에는 계획된 신도시가 흔한 사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항동처럼 완전히 계획된 도시에 스마트 기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걸 우리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송OO위원

여전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SOS 아동복지기관이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간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특화된 우리나라 아동들의 가정환경이나 우리나라 아동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가서 보셔야지 이걸 왜 해외에 나가서 봐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말씀드렸지만 해외를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자료수집이 불가능할 때 나가라는 게 행안부 지침인데 국외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 팀장님이 '스마트도시' 색해 보면 수많은 논문들이 나온다니까요. 수많은 해외 사례를 박사급 연구진들이 가서 보셔서 연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의원 중에 관심이 있으면 그걸 보시면 되지 굳이 이 짧은 일정에 나가서 보셔서 무얼 얼마나 얻어오실까, 저는 오히려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이 비용으로 국내 전문가를 의원들이 초빙해서 세미나를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은 안 하시고 무조건 해외로 나가시려고 하는 거는 외유성이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외유는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의원 개인 돈으로 나가야지 왜 세금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전히 장소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지금 CIIRC 4차 산업 연구소를 쓰셨는데 여기가 4차 산업 연구소가 맞나요?

○정책지원팀장 박OO

네, 맞습니다.

○송OO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이름을 지금 임의로 4차 산업 연구소라고 붙이신 거 아니에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저희도 가본 장소는 아니니까 자료상 확인했는데 체코 공과대학에서 스마트 4차 산업 연구하는 곳이고요.

○송OO위원

여기다가 지금 4차 산업 연구소라는 명칭을 누가 붙였냐니까요. 이 문건을 만들 때 이 CIIRC라는 곳에 대해서 4차 산업 연구소라고 명칭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의원인가요, 아니면 여행사 직원인가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아니 같이 출장사를 선정한 것은 같이 의논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기관 선정할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송OO위원

아니 저는 이 명칭을 누가 여기다 이렇게 표현했냐고 여쭙보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4차 산업 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지원팀장 박OO

글쎄요. 위원님 무슨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일전에 한 번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왔었는데 정말 심도 있는 어떤 그런 논의……

○송OO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연구소가 4차 산업 연구하는 연구소가 아닌데 4차 산업 연구소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지금 심의를 좀 쉽게 통과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이건 잘못된 명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연구소가 지금 로보틱스, 사이버 네버틱스 이런 거 연구하는 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체코 공과대학 산하에. 사실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접촉이 수락이 된 기관인가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지금 섭외 중입니다.

○송OO위원

섭외 중인 기관이에요? 안 된 기관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서울대 공과대에, 체코 공과대가 세계적인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보다 높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서울대 공과대학에 사이버 로보틱스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해외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와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하면 이게 심도 깊은 얘기가 되나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직 섭외 확정이 안 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서 계속 이메일이 오면서 저희가 최종 답변드린 게 뭐냐 하면 분야를 좀 세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메일이 왔어요. 과연 뭘 보고 싶은지, 그렇지 않으면 컨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메일이 와서 구로구 스마트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답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 교수님께서 꼭 만나보고 싶다. 이 얘기까지 했다는 건 들었습니다.

○송OO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선정한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구로구의원 중에 누군가가 이 연구소를 꼭 가봐야 되겠다, 라고 희망했던 의원이 있다면 구체적인 어떤 제안을 처음부터 내놔줬죠. 저는 이것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관들이 기관 방문과 어떤 여행을 같이 끼워넣기 위한 것으로밖에는 저한테는 보이지 않고요. 체스키크룸로프라는

대도 전에 다녀왔던 곳으로 보이고 지금 계획이 변동이 있었는데 기존에 잡으셨던, 어제 메일로 잡으셨던 계획 중에 제가 좀 황당했던 곳은 지금 비엔나의 찰츠부르크의 게트라이데라는 데가 있다가 지금 빠진 게 맞나요?

○정책지원팀장 박OO

네. 맞습니다.

○송OO위원

그 게트라이데라는 게 지금 차 없는 거리 현장 시찰로 목적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공무국외출장 보면 유럽에서 차 없는 거리 방문을 또 다른 데를 막 해요. 그런데 이게 가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게트라이데라는 데는 사실은 관광지예요. 여기 가면 찰츠부르크 대성당이라는 곳도 있고요. 여기 모차르트 집이 있어요.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이런 게 바로 지금 심사위원들을 속이는 대표적인 페이크죠. 제가 볼 때는.

○정책지원팀장 박OO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식 일정이 확정이 지금 최근에 되고 있는데 어제 출장사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비즈니스 에이전시가 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정 때문에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여기가 확정됐으면 여기를 가자. 그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한 거예요.

○송OO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변경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한테 배포된 계획에 이렇게 뻥히 의도가 보이는 게 계획안에 올라올 정도로 지금 위원들의 보고서나 계획서나 지금 의회사무국의 계획서가 순수하지 않다, 라는 거예요. 사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뻥히 보이는 포장을 한다, 라는 거예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위원님 포장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솔직히 사실 그걸 감추고 싶다면 아예 계획서에서 뺐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제가 여기 자료 지금 많이 드렸잖아요. 그동안 공무국외 심사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오픈한 적이 없을 겁니다.

○송OO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부실한데요. 옛날 자료보다.

○위원장 안OO

잠깐만 한 분이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갖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 이렇게 질의할 기회가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조금만 자제를 좀 해주시고요.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좀 줬으면 하겠습니다.

○송OO위원

제가 아까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질문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내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스마트시티나 도시재생이나 도시·문화 개발 이런 것들 계속 그동안 공무출장에서 지역만 바뀌가면서 써먹었던 핵심 단어고요. 과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과연 이 방문국보다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한 정보 수집이 국내에서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 그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다른 심사위원들 질문 듣겠습니다.

○김OO위원

저는 의견은 아니고요. 심사위원회도 저도 다른 곳에 많이 다녀봤는데 2시간 정도 시간을 완비해서 왔는데 좀 제안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시간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시는데 저는 5시에는 조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가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제안을 드리고요. 뭐 여유를 가지고 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 뭐 쪽 할 수 있지만 그런 안내가 없었기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OO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분 더 이야기를 듣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OO위원

저는 혹시 이 기간 동안 이때가 태풍 막 이렇게 올 수 있는 기간이에요. 추석 전후에 항상 그렇게 그럴 때 정말 아직 예측하지 못하지만 혹시 큰 태풍이 온다거나 그래서 구민들의 안전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운영위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 이OO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의회 회의 소집권이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한테 있어서 제가 남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안 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태가 생길 경우는 위원님들이 갔을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런 사건이 생겼다면 안 가는 게 맞고요. 또 만약에 가시고 난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남아 있는 의원님들이 또 열심히 주민의 민원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OO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전부 다 듣고 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각 항목에 대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회의라는 것은 마라톤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심사기준을 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모든 질문을 마치고 이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해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OO위원

심의를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게 먼저 아닐까요? 전에도 심의는 충분히 이루어졌고 중간에 개인적인 시간이 바빠서 우리 심의위원회 끝까지 못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양해를 구하고 퇴장하셨습니다.

○위원장 안OO

그런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무리 좋은 의견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의견과 전체적인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더라도 빠지면, 여기가 인원이 뭐 한 2~30명 있고 이런다면 커다란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전부 해봤자 7명인데 그중에서 또 빠져나가고 그래버리면 온전히 어떤 심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계신 가운데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김OO위원

해외 공무 활동은 항상 뜨거운 감자거든요. 뜨거운 감자인데 이제는 구로구와 구로구의회가 분리된 상태로 처음 맞는 그런 해외 출장인데 좀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인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OO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황OO위원

심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심의가 충분하게 이뤄지려면 충분한 자료, 요청한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심의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결정할 수 없다면 다음 2차 회의를 잡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목적성은 가장 첫 번째 심사 항목인데 그 목적성부터 저는 가기 위해서 간다, 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들거든요. 계속 가

왔고 그리고 계속 가 왔으니까 우리는 간다. 가고 싶은 나라는 여러 곳 있는데 거기에서 다수결로 이 나라를 가기로 했다. 가기로 했으니까 우리 한 번 가면 이런 데 가보겠다. 우리 전문 넓히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창의력이요. 창의력까지 말씀하시는데 무슨 청소년들 육성 사업입니까? 준비되신 분들을 저희가 뽑아야죠. 이게 지금 뭘니까? 저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지금 어쨌든 최소한 심의는 충분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청드린 자료는 받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OO

어떤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은 하실 수 있어도 전체의 의견이 내 의견과 같다는 생각은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일한 장소를 가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시티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사실은 이 세대가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 쓰시라고 하면 잘 못 쓰시고 심지어 요즘은 키오스크도 잘 못 쓰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그만큼 세대가 빨리 발전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와 동일한 장소를 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선진국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후진국도 저는 가 봐야만 이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후진국이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후진국이라도 간다면 그쪽에도 가서 배워올 필요가 있다,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특히 왜 여기를 가느냐 뭐 이러느냐 그러는데 똑같은 도시재생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스마트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사진사에 대해서 한번 그 예술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해에 일출을 찍으러 간다,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장소를 매일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장소인데 왜 가겠습니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OO위원

제가 처음이라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를 듣고 나서 보면 저희 심사위원이 7명이잖아요. 위원장님도 하나의 심사위원으로 해서 위원장이 되셨으면 아까 계속 얘기 때 개인 의견이고 전체 의견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도 개인 의견이시지 제가 지금 거의 2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왜 위원장님이 또 하나의 공무원이신 것 같은 또 하나의 구의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똑같은 심사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을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저희 1년에 한 번 모인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 저희 이름 걸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끝까지 열심히 다 보고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가 오늘 결정하는 것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지나요, 팀장님?

○정책지원팀장 박OO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무국외출장이 적합하다, 아니면 부적합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김OO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 듣고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의 개인으로서 그냥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기 사실 공무원님들, 주무관님들 뒤에 있으시는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팀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떠한 내용을, "이런 자료가 부족합니다. " 그러면 빨리 가셔서 뽑아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그거를 다음에 보내주시고 메일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그냥 여기에 "예 , 아니오" 심사 기준을 하고 나면 그건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뒤에 참모진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거에 대한 서류 자료 제출을 지금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1년에 한 번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1년에 한 번인지 몰랐는데 1년에 한 번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 더 책임감을 느껴서 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OO위원

추가로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자료가 지금 준비되신 건가요?

○정책지원팀장 박OO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OO위원

자료는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팀장님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위원님들께 2019년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제가 위원장을 했고 그전에 어쨌든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이 개선됐는지를 봤는데 개선이 안 돼서 그때는 이태리 출장이었는데 관광지 그리고 필요 없는 도서관 방문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수의 위원들이 다 부적합하다, 라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당시에 박철성 의장님의 부탁으로 위원회 들어오신 무조건 찬성해 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고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문제점은 있지만 마음이

약해서 찬성하겠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으니 조건부 승인으로 하자, 라고 해서 그럼 다녀와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원들이 발표회를 갖는 걸로,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단어가.

그다음에 공무출장심사위원회 명의로 개선안을 제시하면 그거를 공무원들이 충실히 반영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걸로. 근데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방법은 "앞으로 잘해주세요." "이거 개선해 주세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계획은 변경을 위원들이 요구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올해 안에 공무출장 가고 싶으면 빨리 변경계획을 변경해서 문제가 있는 계획들을 변경해서 가져와라, 라고 저희가 요구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이대로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승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개인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들이 바라는 대로 예를 들어서 유럽 같 사람 뭐 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가든가 호주 같 사람 나눠서 정말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계획과 예산을 다시 짜서 한다면 저희 심의위원들이 사실은 2주 뒤가 됐든 뭐 바쁘면 일주일 뒤가 됐든 계획만 빨리 만들 수 있다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개선되지 않았던 사항 중에 뭐냐 하면 얼마나 이것을 형식적 절차로 생각하면 이게 나가기 한 달 전에 심의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사실은 9월에 나갈 생각이었으면 6개월 전에는 계획을 잡고 심의를 충실히 거친 다음에 그 심의가 통과된 그 내용을 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고 그래야 구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미 2017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또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한 달 전에 연단 말이에요. 사무국 직원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심의위원들이 각자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구민의 예산을 아끼고 구로구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의해 주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박OO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고회에 대해서 송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전달 들은 얘기인데 보고회를 하려고 했는데 과연 어느 위원님이 보고할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좀 결정이 안 됐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의장님이 보고하겠다고까지 됐는데 그게 아마 또 협의가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고가 늦어지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보고회가 안 됐다, 이렇게 저는 전달 들었고요.

그다음에 30일 전에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조례사항도 그렇고 행안부 권고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원래 15일 전에 보고하게 돼 있던 사항을 심사위원회 30일 전으로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여기에 맞췄고요. 저도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게 2월부터 시작된 건데 의원님들 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의할 것도 많고 변경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60일 전에 하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행안부 권고안하고 조례안에 맞춰서 30일 전에, 저희가 계획을 일부러 늦춘 건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OO위원

행안부 권고안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행안부 권고안보다 훨씬 느슨한 심사 기준을 지금 구로구의회 조례는 적용하고 있고요. 다른 구의 조례와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로구의회 공무출장 조례에서 제가 가장 창피했던 부분은 공무출장 조례 말 나온 김에 잠깐 보시겠어요. 10조입니다. 오늘 배포된 자료에 관련 법령 및 조례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출장 조례가 있는데요. 제10조가 출장사 선정이에요. 그래서 "연수 일정, 연수 목적, 연수국의 방문 기관과 적정한 출장경비 등을 제시하는 출장사나 해외 연수전문기관 중 설명회 등을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가 오늘 오전에 업무를 다 제끼고 다른 구의회 공무출장 조례들을 다 뒤져봤는데 출장사 도움을 받겠다고 이렇게 조례에 넣어놓은 구는 구로구밖에 없어요. 엄청 이거 지금 창피한 일입니다. 지금 여행사가 계획 짜주고 여행사가 섭외하고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조례에다 이걸 넣어가지고. 어디 행안부 규정에 무슨 출장사 도움 받도록 돼 있나요? 아니면 다른 구 조례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저희가 올 5월에 안 그래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행안부 권고 사항에 맞춰서 하자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미룬 이유는 저희가 해외 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해서 조금 딜레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송OO위원

어쨌든 굉장히 부끄럽고 문제가 많다, 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내용적인 문제라든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OO

또 다른 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OO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출장경비 문제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아까 협약 체결했는지 자료는 오는 대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 출장경비가 지난번에 계산이 틀린 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련 규정을 첨부해 주셨잖아요. 그 규정을 어디에 보면 일당을 얼마까지 쓸 수 있는데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여기 나목에 적용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를 적용해서 이 금액이 나왔고 일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혹시 설명 자료가 만들어져 있나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으로 여기에 다 넣어놨거든요. 이거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송OO위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박OO

관련 규정에 뒤에 저희가 여비 규정을 미리 사전에 다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제1호에 해당되는 분이십니다.

○송OO위원

팀장님,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못 찾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첨부 자료 페이지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공무원 여비 규정 직원 국외 여비 지급표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팀장 박OO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이 있습니다. 여비 지급 기준표, 거기 보면 1호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장, 부의장님은 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 해당하는 분으로 일단 여비 산정할 때 기준을 잡았고요. 다른 의원님들하고 직원분들은 별표 1 2호에 해당하는 분으로 선출하게 돼 있어서 직원 여비 지급표에 5번의 별표 1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라 등급도 여비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나등급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체코는 다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 여비 산출 기준도 달라서 거기에 맞춰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비는 오스트리아는 지금 나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일비가 35달러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35달러로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은 30달러, 다음에 체코는 일비는 등급이 같습니다. 다등급이지만 일비 계산은 똑같이 하게 되어 있어서 체코도 35달러, 30달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비는 항공 갈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5박 기준으로 해서 오스트리아 3일, 프라하 2일 이렇게 했고요. 지금 그 직원 여비 지급표에 보면 그 상한액이 있습니다. 160달러, 140달러 나등급은 의원하고 직원은 147달러, 다등급은 실비상한액 106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출장사를 통해서 좀 저렴하게 잡을 수 있어서 상한액 다 잡지 않고 85%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비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별표1의 1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등급 78달러 계산했고 다등급 체코는 58달러로 산출을 했고요. 다른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은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등급 오스트리아는 59달러 그다음에 체코 다등급은 44달러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3번의 출장경비에 일비·식비·숙박비·항공 운임·자동차 운임, 준비금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별로 산정해서 출장 경비를 산출했습니다.

○송00위원

일단은 일비의 개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책지원팀장 박00

일비는 출장 다니면서 본인이 쓸 수 있는 차비도 낼 수 있고요. 그런 경비로 쓰는 거고요. 식비는 말 그대로 식사 실제로 식사하는 식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송00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일비를 의원 개인한테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책지원팀장 박00

일비를 1/2 감액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운임이 잡혔기 때문에.

○송00위원

그래서 1/2이 감액이 됐다고요?

○정책지원팀장 박00

네.

○송00위원

그래서 지금 의장님의 일비가 지금 15만 9,863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산출됐는지를 한번 검증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의장님의 일비가

나지역, 다지역 다 지금 하루에 35달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일 동안의
일비인가요?

○정책지원팀장 박00

그 출장 가는 12일은 제외하고요. 13일부터 해서 돌아오는 날까지.

○송00위원

그래서 며칠을 잡으신 건가요? 35달러로 일비를. 지금 1/2을 했다 그러니까
35달러의 절반에 곱하기 일정 "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책지원팀장 박00

잠깐만요. 저희가 일정이 13일부터 15일까지는 비엔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송00위원

아니 일비 같은 경우에는 두 지역이 의장 35달러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나눌 필요는 없고 35달러의 절반을 지금 며칠 곱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35달러의 절반이면 17.5달러인데 곱하기
며칠인가요?

○정책지원팀장 박00

7일로 계산해서.

○송00위원

그러면 7일이면 122.5달러인데 이 달러에 대한 환율을, 이게 달러인가요,
유로인가요?

○정책지원팀장 박00

달러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 산출은 또 우리 담당이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서 좀
부르겠습니다.

○김00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한 4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회의
관련해서 시간을 좀, 제가 심의는 2시간 넘게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지 몰랐고 사실은 제가 그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후에 또 2차, 3차 회의가 진행되면 또 제안해 주시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 의사는 위임을 하고 가도 될까요?

○송00위원

일정에 대한 의사 위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00위원

일정과 다른 것들 오늘 결정이 돼야 되는……

○송OO위원

결정에 대해서는 위임이 불가능하신 거죠.

○김OO위원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쭙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제가 아까 제안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다 안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제 의견이니까 제 의견에 대한 것에 좀 답을 해주셔야 저도 일정이 있어서.

○송OO위원

그러니까 일정에 대해서는 위임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표결할 때 자리에 안 계신 상태에서 표결에 대한 위임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회의의 일반 원칙하고도 어긋나고요.

○김OO위원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한테 일단 여쭙보는 거니까.

○위원장 안OO

위임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은 전부 다 저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OO위원

불가능합니다. 위원장님! 만일에 그렇게 처리하시면 무효확인 소송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표결을 행사하시려면 표결할 때까지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위원장 안OO

이 부분은 법조계에 근무를 하다 보시니까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임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통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가뜰이나 법무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서 일단 뜻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OO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니까 위원장님의 뜻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송OO위원

그럼 어쨌든 김OO 위원님 바쁘셔서 지금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OO위원

네.

○송00위원

저는 심의가 충실히 되려면 곧 또 회의를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00

여기 출력하고 있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일단은 우리 부위원장님이 가장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보시고 시간이 되면 계속 출력이 돼서 나오면 나머지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표결에 있어서의 문제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에 대해서는 저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되는데 법무사님이다 보니까 법을 너무나 잘 아서가지고 표결에 대한 것은 안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요.

○송00위원

저희가 2차 회의를 또 열면 됩니다.

○위원장 안00

그러면 3시부터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어디 가든지 간에 회의에서 3시간 이상 해보는 역사가 없습니다. 사실 해봤자 한 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전부 다 끝나는 건데 지금 이 시간만 하더라도 벌써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6시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00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위원장님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는 사안이신데요. 위원들이 심의가 충실히 돼야 회의가 끝나는 거지.

○위원장 안00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두 사람만 빠져도 벌써 회의 진행이 조금 어렵습니다.

○송00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오늘 모든 걸 결정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2차 회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들끼리 연락을 해서, 충실한 심의가 먼저지 저희가 졸속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위원장 안00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기한을 두고 거기까지의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하겠다는 얘기죠. 뭐 표결을 하고 어찌고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송00위원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만 9,863원 의장님의 일비가 지금 계산이 그러면 된 건가요?

○정책지원팀장 박00

지금 이 계산식이 나온 자세한 자료를 지금 담당이 다시 출력해서 올 거예요.

○송00위원

그러면 지금 식비로 넘어가면 지금 식비의 85% 산정했다고 말씀을……

○정책지원팀장 박00

숙박비.

○송00위원

숙박비의 85%. 근데 이거 사실은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건데 규정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심지어 의원들, 직원들이 밥값이 다 다른데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가요? 아니 그러니까 현실하고도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같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의장·부의장 테이블 따로 해가지고 저쪽은 비싼 음식 주고 여기 직원은싼 음식 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책지원팀장 박00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의회도 다 비슷한 실정인데 여비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산정을 해서, 사실은 이 여비가 모자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의장·부의장님하고 어쨌든 의원님하고 직원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공통 경비 개념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게 두 분을 산정을 하고 거의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00

여비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밥 먹는데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어디 다른 데 가서 밥 먹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식사를 하느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대부분이 학교에서도 저희가 출장을 나가다 보면 그렇게 여비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규정상의 지급은 이런 형태로 하고 그 대신에 공통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아마 구의회도 그러지 않을까,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송00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숙박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은 2인 1실을 쓰게 돼 있는 건가요?

○정책지원팀장 박00

의원님들도 2인 1실입니다.

○송00위원

그러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어떤가요?

○정책지원팀장 박00

왜냐하면 여성·남성 이게 있어서요. 의장님 한 분만 혼자 쓰시고 다른 분들은 다 2인 1실입니다.

○송00위원

그러면 숙박비도 구체적으로 이 금액이 82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뽑고 계신 거죠?

○정책지원팀장 박00

네.

○송00위원

그리고 지금 항공운임 같은 경우에 기준이 없나요?

○정책지원팀장 박00

항공운임이 국적기 직항을 봤더니 한 2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서 이번에 경유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 경유해서 가는 비용입니다.

○송00위원

그래요? 좌석 등급의 차이는 없나요?

○정책지원팀장 박00

좌석 등급은 원래 의장님은 더 등급을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같이 이코노믹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송00위원

저는 지금 자동차 운임이 지금 일률적으로 66만 원 해가지고 1,122만 원이 잡혀 있는 게 너무 지금 과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출 근거가 뭔가요?

○정책지원팀장 박00

자동차 운행은 실비로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일비를 감액한 겁니다. 자동차를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일비를 2분의 1 감액했습니다.

○송00위원

2분의 1을 감액했다고요?

○정책지원팀장 박00

네.

○송00위원

일비를 감액해서 자동차 운임에다 더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지원팀장 박00

공통으로 어떤 차량을 쓰면 일비를 2분의 1 감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송00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운임이 자동차를 며칠 동안 이용하시는데 자동차 운임이 1,122만 원인가요?

○정책지원팀장 박00

그날 도착해서 13일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계속 운행을 합니다.

○송00위원

그럼 버스 하나를 빌려가지고 계속 그걸로 돌아다닌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지원팀장 박00

그렇죠. 나라를 이동할 때 국경을 넘어올 때도 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송00위원

그래도 과도한 것 같은데. 이것 그냥 여행사에서 청구한 대로?

○정책지원팀장 박00

아직 일정이 심의가 통과 안 되고 해서 어쨌든 확정된 금액이 나중에 나오면 정산을 새로 할텐데 그때는 증빙자료가 다 붙을 거예요. 정확한 금액이.

○송00위원

증빙자료가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도한 금액을 써놓고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과도한 금액을 지출하지 않도록 이 금액이 과연 적정 예산인가를 보라는 거 아니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과도한 운임이 아니다, 라는 증빙을 뭘 갖고 계신 거죠? 설명을 어떻게 하실 수 있죠?

○정책지원팀장 박00

저희가 국내연수나 이렇게 가면 차량 한 대 빌리면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에 비춰보면 그렇게 과도한 금액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송00위원

거기에 지금 현지에 차량 버스 예를 들면 45인승 한 대 빌리는 데 얼마다, 라고 가격 조사를 시장 조사하신 게 있나요?

○정책지원팀장 박00

180만 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이 차량 운행 증빙을 정확하게 받을 거예요. 금액 산출한 견적 그래서 그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과도하게 부풀린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송00위원

견적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계획에 넣어놓으신 거 아닌가요?

○정책지원팀장 박00

그러니까 증빙자료 영수증.

○송OO위원

그러니까 증빙은 의미가 없다니깐요. 아니 돈 많이 청구해서 많이 쥐 놓고 나서 증빙자료 붙이는 건 하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왜 자꾸 증빙에만 집착을 하세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영수증은 반드시 첨부하게 돼 있으니까.

○송OO위원

그건 의미가 없다니깐요. 이게 적정하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 지금 유럽에서 체코 여기서 버스 하루 45인승 빌리는데 180만 원이다, 라고 시장조사를 하신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신가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시장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시다.

○송OO위원

그게 문제인 거죠. 예산을 줄이려면 사무국에서 여행사가 준 견적대로 계획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적정한가 시장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지원팀장 박OO

그래서 저희가 여행사, 물론 출장사를 선정한 이유도 있고 그리고 출장사를 선정할 때 두 군데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는 거고 공개 모집을 했는데 한쪽의 출장사는 이곳보다 훨씬 금액을 오버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는 그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저희한테 견적을 제시했고 그래서 거기서 일단 비교가 돼서 선정된 여행사입니다.

○송OO위원

경비 문제는 일단 지금 금액이 맞는지 실무자가 계산하고 계시니까 계산이 나오면 맞는지 추가로 보고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죄송한데 위원장님 잠깐 좀 쉬면 안 될까요? 한 10분이라도.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위원장 안OO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10분 정도.

○송OO위원

5분만 좀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안OO

위원님들 5분 쉬는 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OO

그러면 5분 쉬었으니까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OO위원

지금 방문기관에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이 비엔나 비즈니스 에이전시 섭외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EU통역가이드 유티리 현지 대행사인가요? 거기서 "섭외하였습니다." 라는 메일을 받으신 건데 밑에 첨부되어 있는 게 담당자가 기관하고 통화한 것을 첨부해서 이렇게 됐다,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건가요?

○정책지원팀장 박OO

기관 섭외는 이번에 심의할 때 저번에는 여행사가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심사위원회에 여행사가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오늘 참석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기관섭외를 여행사하고 많이 컨택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답변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메일은 여행사가 계속 대행하고 컨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관섭외가 완료됐고 접촉인물까지 완료가 됐다,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줘서 저희가 여기에 기재를 했고요. 메일 오고 가는 것은 출장사에서 했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OO위원

그러면 현재 섭외담당자가 비엔나 비즈니스 에이전시가 했다, 이렇게 메일을 받으셨다는 거네요. 비엔나 비즈니스에이전시가 며칠날 방문하는 곳이죠?

○정책지원팀장 박OO

9월 14일입니다.

○송OO위원

14일이요? 그러면 하나는 메일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나요?
SOS 어린이마을.

○정책지원팀장 박OO

9월 14일.

○송OO위원

여기는 SOS 어린이마을 일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메일을 받았고 전화를 요청했지만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와 있는데요. 맞나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쭉 뒤에 보시면, 혹시 저희가 몰라서 출장사를 대기시켰는데 자세한 답변 원하시면 참석하시라고 할까요?

○송OO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위원장 안OO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OO위원

잠깐만 들어오시라고 하죠. 지금 어린이마을 자체를 방문하시는 게 아닌가봐요. 관계자를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정책지원팀장 박OO

SOS 어린이마을이 비엔나에도 있고 비엔나에서 1시간 거리 떨어진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시간 떨어진 곳으로 최종 결정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컨택을 하려고 합니다.

○송OO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지 방문기관하고 섭외가 됐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SOS 어린이마을에서 비엔나에서 만나고자 했는데 pinkafeld로 지정해줬다, 이렇게 메일 내용에 있는데 이 pinkafeld가 시설인가요? 시설 외에 장소인가요?

○출장사대표

시설입니다. SOS 어린이마을이라고 하는데 기관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양천구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순천에도 있듯이 오스트리아에도 비엔나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있는데 비엔나에서는 장소가 여의치가 않아서 우리는 꼭 만나고 싶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만나게끔 하고 싶다해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송OO위원

그러면 비엔나하고 pinkafeld를 하는 것은 버스로 이동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출장사대표

1시간 걸립니다.

○송OO위원

그러면 SOS 어린이마을이 있고 혹시 우리나라에도 SOS 어린이마을이 있는데 왜 비엔나까지 가서 의원님이 여기를 방문하고자 하는지 구로구의회사무국이나 의원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으신 것이 있나요?

○출장사대표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요. 최근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기사나 우리나라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이라든지 또 어린이학대 그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있긴 하지만 해외의 정책이라든지 시사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에 오셔서 양천구 미팅이라든지 순천 본사 미팅이라든지 확장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00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 관련된 자료인가요?

○출장사대표

이 자료는 아스페른 신도시라는 오스트리아에서 4차 산업과 IT를 접목시킨 신도시를 현재 개발중에 있고 어느 정도 착공을 해서 2028년도에 완공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곳에 대한 미팅 내용입니다. 현재 그곳은 15일 오후 1시에 미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송00위원

아스페른 신도시요? 15일이요?

○출장사대표

네. 지금 심의 중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송00위원

그 자료 다시 주시겠어요. 아스페른 개발공사 이런 담당자랑 접촉하신 건가요?

○출장사대표

네. 맞습니다.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구로구에도 홍보팀이 있고 홍보과가 있고 담당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부서에서나 구로구에 대해 미팅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니니까 그쪽도 홍보팀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해줄 수 있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분이 나오셔서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송00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봤고요. 지금 프라하에 CIIRC 여기 4차 산업연구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출장사대표

어제까지 내용은 우리가 미팅을 원하는 날짜, 프라하 쪽에서 일정이 9월 18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월요일 아침에 만나고 바로 오후에 11시반 정도에 공항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나오실 교수님, 프라하 공대안에 있는 연구소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날 프라하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어서 직접 미팅은 할 수 없지만 구로구가 지향하는 바가 4차 산업하고

여러 가지 IT 관련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만나보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영상회의라도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00위원

이게 원래 11시에 만나고 공항으로……

○출장사대표

9시 반에서 10시 정도에 미팅을 요청했었습니다.

○송00위원

원래 미팅 시간도 내가 볼 때는 짧은데 그 미팅은 하고자 했던 미팅이 현재로써는 성사가 안 된 거네요.

○출장사대표

보통 미팅을 가게 되면 2시간 정도 미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00위원

네. 일단 의견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사대표

감사합니다.

○송00위원

그러면 아까 비용에 대해서 준비가 됐나요?

○담당주무관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비같은 경우는 공무국외출장을 가면 버스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일비는 반으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부분은 일비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4에 보시면 의장, 부의장은 35달러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의원, 직원은 30달러가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부분은 일비가 3일이 적용이 됐고 체코는 4일 적용된 부분입니다.

○송00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의장님 기준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어차피 체코하고 오스트리아가 동일하잖아요. 그걸 나누는 건 의미가 없고 의장님 15만 9,863원이 그러면 원래 35달러인데 2분의 1해서 17.5달러를 곱하기 7일을 해서 122.5달러가 나오고 그것을 환율을 달러당 1,305원을 적용해서 그래서 15만 9,863원이 나온 건가요?

○담당주무관

네. 맞습니다.

○송00위원

그리고 숙박비 부분을 이 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담당주무관

숙박비 부분은 85%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숙박비 부분이 오스트리아 나등급인데 실비상한액이 160달러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85% 적용한 부분이고요.

○송00위원

160달러 85% 적용하면 얼마인가요?

○담당주무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송00위원

지금 상세내역 뵈겠다고 시간 걸린 거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 아니 상세내역을 뵈겠다고 시간을 충분히 드렸잖아요. 의장님 숙박비 기준으로 다시 얘기하시죠. 그래서 의장님이 직원 국외여비 지급표 4번에 따라서 실비상한액이 160달러잖아요. 160달러에 85% 적용하셨단 얘기인가요?

○담당주무관

160달러에 85% 적용했고요. 체코같은 경우에……

○송00위원

그래서 몇 달러인가요?

○담당주무관

오스트리아는 의장님 숙박비는 408달러입니다.

○송00위원

하루에 408달러.

○담당주무관

아니요. 3일에 408달러입니다.

○송00위원

하루에 160달러 아니에요?

○담당주무관

맞습니다.

○송00위원

160달러에 85%를 적용하면 하루에 얼마?

○담당주무관

136달러입니다.

○송00위원

136달러요? 곱하기 며칠인가요?

○담당주무관

3일입니다.

○송00위원

그다음에 다등급으로 넘어가서 130달러에 85% 적용하면 얼마인가요?

○담당주무관

110.5달러입니다.

○송00위원

곱하기 며칠인가요?

○담당주무관

이틀입니다. 221달러입니다.

○송00위원

그러면 136*3하면 얼마인가요?

○담당주무관

408달러입니다.

○송00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하면 628달러인가요?

○담당주무관

629달러입니다. 절상해서요.

○송00위원

왜 갑자기 629달러가?

○담당주무관

엑셀로 작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정산할 때.

○송00위원

아니 왜 갑자기 629달러가 돼요. 628달러인데요. 그러면 일비하고 숙박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 자동차 운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현지에 버스를 하루에 빌리는데

○담당주무관

1,300유로 나옵니다.

○송00위원

1,300유로가 한화로 하면 얼마인가요?

○담당주무관

약 187만 원 정도 됩니다.

○송00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조사하신 게 있나요?

○담당주무관

여행사를 통한 견적 받았습니다.

○송OO위원

여행사를 견적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직접 조사는 안 하셨다는 얘기죠? 일단 비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50분까지 해보자고 했는데 2분 남았는데 저희가 항목별로 들여다 볼 것은 들여다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팀장님한테 설명을 요청했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가지고 "예, 아니오"로 체크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저는 만약에 6시나 10분까지 한 20분 정도 연장할 수 있다면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2차 회의를 나을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위원장 안OO

저의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릴까요? 이제까지 모든 이야기들은 다 들었고 어떻게 된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 메일로 보내서 팀장님한테 받으면 어떨까요?

○송OO위원

최종 결정을 메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기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의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지 온라인으로 메일을 보내고 하는 게 어딴습니까?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OO위원

심사기준에 저희가 체크를 하는게 공통의견을 해서 1항목에 "예"가 많으면 "예" 이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생각으로 해서 체크를 해서 제출하는 겁니까?

○정책지원팀장 박OO

심사기준은 조례상에 기준을 드린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끼리 그 기준을 보고 적합한지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 항목 기준에 맞추어서 심사를 하신 다음에 이 계획서가 적합하느냐, 부적합하느냐는 개인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거기서 '적합하다'가 더 많이 나오면 통과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적합하다'가 나오면 통과 안 되는 것이고요.

○송OO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준 것이고 이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 "예, 아니오"를 판단해 본 다음에 본인이 결정을 해서 통과냐, 부결이나 결정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추가시간 20분 정도를 갖고 오늘 논의를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2차

회의를 잡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할 것인지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00위원

제 생각은 지금 3시간 가까이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심사기준표를 개인 생각으로 제출하는 거라면 지금 읽어보면서 제출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송00위원

제출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00

팀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섯 분밖에 없습니다. 여섯 분밖에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 확실하게 해서 Yes, No가 나와서 몇대몇 이렇게 나와서 가버리면 괜찮은데 동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 분이 더 계시면 괜찮은데 계시지 않다 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송00위원

규정은 상세하게 없습니다. 규정에 만약에 동수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다시 표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회의를 잡는다든가 시간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지난번에도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만약에 오늘 찬반 결정을 했는데 동수가 나온다면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죠. 계획을 다시 짜와라.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원들이 이렇게 이번 계획이 다수결로 결정됐으니까 그것이 옳은 것 아니냐, 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 계획은 특정 의원이 과도하게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의원들을 위해서라면 위원회별로 나와서든 각자 가고 싶은 곳으로 가든 해서 유럽이면 유럽, 호주면 호주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다시 만들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표결을 해보고 가부동수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 안으로는 부결이 된 거고 안에 의하면 저희는 과반수 참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되어 있나요?

○정책지원팀장 박00

네. 맞습니다.

○송00위원

그러면 만약 가부동수가 나왔다면 그것은 찬성을 못 얻은 것이니까 부결인 것이죠.

○위원장 안00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 대해서 통과를 했던 부분이 50분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다고 한다면 다음 시간을 잡아서 다시 한 번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위원장이 아까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의견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50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회의는 정회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 회의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양해를 구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동의를 얻은 결과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 부위원장이 20분간 더 한다고 해서는 그것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었고 정확하게 동의를 얻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아, 저는 동의는 못합니다."하고 얘기를 했다면 그런 데 이미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동의를 했어요.

○송OO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오늘 이것 준비하느라고 자영업자로서 제가 손해 본 경제 가치로 따지면 100이 될지 200이 될지 300이 될지 모르는 일인데 저도 오늘 마무리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어쨌든 심의는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심의가 목적이 정당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부적절하는 것을 항목별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비항목까지 다 봤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표결을 할지 아니면 부결을 시켜가지고 제3의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오도록 할지 거기에 대해서 표결로 결정하시죠.

○위원장 안OO

아까 이미 결정을 해놨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50분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다른 것을 얘기하자,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또 한 번 얘기를 나눈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얻었고 얻은 결과를 가지고 위원장의 직권으로 오늘 회의를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 날짜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OO위원

수정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안건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한 다음에 그 이전 안건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데 그 이전에 이야기가 됐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은 저는 옳은 순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안건이 계속

의견을 주실 때마다 나오고 있는데 안전으로 정리되지 않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정리되지 않은 회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 안전을 안전으로 인지하는 순서를 가져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OO

이미 안전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 끝났어요. 지금에 와서 새로운 안전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5시 50분까지 테드라인을 정해놓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의견을 여쭙봤죠. 그랬더니 전부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정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OO위원

언제까지 가부 결정이 언제까지 정확하게 나와 되는 건가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저희가 30일 전에 제출을 했고요. 너무 늦어지면 저희도 혼란스러우니까 다음주까지는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OO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약속한 시간은 지났고 한 분이 가시고 했으니까 저는 다음에 회의를 해도 이것보다 더 나올 내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각자 결론을 내리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가지고 계속 하는 것보다는 7명 시간을 맞춰서, 김OO 위원 가셨지만 오실 수 있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만 해도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결과를 해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감정도 그럴 것 같고 합니다.

○위원장 안OO

부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송OO위원

김OO 위원님 얘기하신 결론을 제가 다른 생각하느라고.

○김OO위원

다음에도 이렇게 긴 시간을 다시 하는 것은 충분히 이것에 대한 의도와 얘기는 다 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자 더 고민들을 하시고 팀장님이 다음주 전까지 가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김OO 위원님이 가시기도 했고 저희 7명이 다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안에 빨리 정해서 다음 회의는 1시간 이내로 끝낼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건 어떨까 합니다.

○송OO위원

7명이 다 모일 수 있다, 라는 전제인데 만약에 7명이 다 못 모이면 회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00위원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00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결론만 내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송00위원

그러면 일단 잡아보시죠.

○위원장 안00

그러면 팀장님께서 날짜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7시59분 산회)
